

민주당·국힘 모두 중도층 확보 총력에도 민심은 안갯속



춘천시내 주요 로터리 일대에서 최근 더불어민주당 소속 선거운동원들이 시민들을 향해 이재명 후보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강원일보=박승선기자



대구시 달서구 죽전네거리 부근에서 지난 24일 국민의힘 선거운동원들이 기호 2번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매일신문=안성완 기자

강원

6·3 대통령선거를 일주일여 앞두고 민심의 흐름이 크게 요동치고 있다. 각종 여론조사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여전히 선두를 달리고 있으나,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가 가파른 상승세로 추격하는 양상이다.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도 두 자릿수 지지율에 진입하며 존재감을 키우는 모양새다. 강원 민심도 이러한 전국 판세와 맞물려 급류 속으로 접어들고 있다. 사전투표를 나흘 앞둔 25일 현재, 강원 유권자들의 마음은 여전히 '안갯속'이다. 대선 주자들의 지지율이 앞치락뒤치락하며 혼전을 벌이는 가운데, 춘천·원주·영동권 등 전략 지역의 민심도 요동치고 있다. 각 당 선거대책위는 지지층 결집과 중도층 공략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여전히 많은 유권자들이 최종 선택을 유보하고 있는 분위기다. 한때 보수의 안정적 지지 기반으로 불렸던 강원은 2017년 대선을 기점으로 도심 지역을 중심으로 표심 변화가 본격화됐다. 특히 춘천과 원주는 민주당 소속 자치단체장과 국회의원을 잇달아 배출하며 민주당의 전략 거점으로 떠올랐다. 그러나 최근 국민의힘도 공세를 강화하면서 두 도시는 어느 정당도 안심할 수 없는 격전지로 부상하고 있다. 각 당 선대위가 춘천과 원주를 '핵심 지역'으로 분류하고 집중 공략하는 것도 이 같은 배경 때문이다. 실제 현장에서는 엇갈린 여론을 확인할 수 있었다.

출렁이는 민심 지지율 혼전 보수 지지 기반이었지만 안심할수 없는 격전지 부상

지난 24일 춘천 명동에서 만난 직장인 김영호(46·춘천 석사동)씨는 "이번 선거는 단순한 여야 싸움이 아니라, 누가 민주주의를 지킬 수 있느냐를 가늠하는 선거라고 생각한다"며 "내란 세력에게 표를 줄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반면 자영업자 정경희(58·원주 태장동)씨는 "이재명 후보는 도덕성 논란이 너무 많고, 사법 리스크도 걱정된다"며 "김문수 후보는 말조심도 하고 이미지도 깔끔해서 상대적으로 신뢰가 간다"고 말했다. 각 당의 치열한 유세에도 불구하고 유권자들 사이에선 "마땅히 찍을 후보가 없다"는 회의적 반응도 적지 않다. 정치 피로감이 짙게 배어 있다. 춘천에서 택시를 운전하는 윤모(61)씨는 "지난해 12월 비상계엄부터 탄핵, 대선까지 반년 가까이 나라가 시끄럽다"며 "누가 되는 빨리 결론이 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김모(33·강릉시 금학동) 공무원은 "이재명은 공약이 너무 많아 현실성이 의심되고, 김문수는 시대 감각이 떨어져 보인다"며 "어느 쪽도 선뜻 신뢰하기 어렵다"고 토로했다. 이러한 반응은 단순한 무관심보다는 정치에 대한 불신에서 비롯된 냉소라는 해석도 있다. 영월에 거주하는 농민 김상길(68)씨는 "고물가에 인건비, 전기요금까지 다 올랐는데, 누가 대통령이 되면 체감되는 변화는 없을 것 같다"며 "공약은 그럴듯하지

만 항상 실망만 남는다"고 말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투표를 포기하겠다는 응답은 드물었다. "마음에 드는 후보는 없지만, 더 싫은 후보가 당선되는 것을 막기 위해 투표하겠다"는 의견이 많았다. 속초에 사는 신모(32·속초시 교동)씨는 "딱판까지 지켜보다가 결국 차악이라고 생각되는 후보에게 표를 줄 것 같다"고 말했다. 대선이 중반전에 접어들며 진영별 지지층도 빠르게 결집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보수세가 강한 영동권을 중심으로 조직력을 강화하고 있으며, 민주당은 춘천·원주 등 도시 지역과 청년층, 중도층을 집중 공략하며 접전지에서의 격차 확대를 노리고 있다. 그러나 '선거는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는 말처럼, 강원 민심은 여전히 유동적이다. 이재명 후보가 다소 주춤하는 사이 김문수 후보가 상승세를 타며 격차를 좁히고 있고, 이준석 후보의 완주의 의사 고수로 인해 '단일화' 여부도 중요한 변수로 떠올랐다. 특히 원주와 춘천 등 도시 지역의 중도·청년층과 영동권의 보수 표심 결집이 막판 판세를 좌우할 핵심 요인으로 주목된다. 이제 유권자들은 "누가 더 내 삶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까"를 묻고 있다. 각 후보가 이 질문에 어떤 해답을 내놓을 수 있을지, 남은 시간이 많지 않다. /강원일보=김현아 기자



광주일보 유튜브
2000만 뷰 돌파

대구·경북

보수 지지세가 강한 대구경북(TK)에서는 대선이 다가올수록 보수결집 움직임이 가속화하고 있다. 국민의힘 당원, 지지자들은 김문수 후보와 한덕수 전 국무총리 간 단일화 과정에서의 실망감으로 선거운동 기간 초반만 하더라도 지지층 분산 모습이 감지됐으나, 국민의힘의 본격적인 선거운동 체제 가동과 정권 교체 우려감이 퍼지면서 '그래도 김문수' 쪽으로 보수 결집이 이뤄지고 있다. 다만,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후보가 고향(안동)을 내세워 '협치' TK 공략에 공을 들이면서 민주당 지지세도 예전과 달리 상승기류를 타면서 30% 득표에 다가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보수 지지층은 국민의힘에 대한 충심에 더해 반(反) 이재명 정서를 이유로 결속력을 높이고 있다. 이들은 이 후보가 떠난고 있는 각종 '사법리스크'와 민주당이 의석수를 앞세워 정치공세에만 치중된 법안들을 납발, 정권이 교체될 경우 낙태를 '대한민국의 미래'에 대한 걱정을 앞세운다. 서문시장 상인 오진철(73)씨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계엄 선포, 그후 탄핵 과정에서 크게 실망했지만, 이런 결과가 결국은 민주당의 무리한 탄핵안 발의 등이 이유였다. 그래서 이 후보가 당선되는 건 막아야겠다는 생각에 '가속표'를 김 후보에게 몰아줄 생각이다"고 했다. 또 다른 상인 김모(74)씨는 "재산현황만 봐도 김 후보가 가장 청렴하게 살아온 것 같다고 판단했다. 이 후보는 거짓말을 너무 많이 하는 것 같아서 (대통령이) 되면 안 되겠다고 느꼈다"고 말했다. 경북의 김 후보 지지세도 다져지고 있다. 박정희 전 대통령의 고향이자 생가가

‘그래도 김문수’ 국힘 지키기 민주 ‘약진’ 30% 득표 분석 이준석, 틈새 확장 노려

있는 구미에서 만난 택시기사 정모(63)씨는 "보수가 집권해서 우리나라 경제를 살리고 이끌어 온 것을 직접 경험한 사람들은 민주당을 지지할 수가 없다"며 "정말 나라의 경제를 근본적으로 살리는 후보가 대통령이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소상공인 김영수(45)씨는 "민주당 정권 들어서면 인건비, 세금, 규제가 확 올라가니까 겁난다"며 "작원 한 명 쓰는 것도 눈치 보이고, 새로 투자할 엄두도 안 나는 상황에서 국민의힘이 정권을 잡으면 현실적으로 더 낫다고 본다"고 말했다. 포항 죽도시장의 한 식당에서는 손님 사이에서 이 후보의 비도덕성을 비판하는 이야기가 나왔고 60대 손님은 "이 후보가 맨날 거짓말하고 현실성 없는 공약을 해대는 탓에 믿을 수가 없다"고 했다. 보수 지지층 결집이 이뤄지고 있지만, 탄핵에 대한 보수 정권 책임감 등으로 민주당 지지세도 만만찮다. 민주당이 지난 대선과 달리 TK에 대한 공을 들이고 있고 이는 '파상공세'적 선거운동으로 사·도민들에게 다가가고 있다. 민주당은 TK 30% 득표를 목표로 하고 있고 일부 여론조사에서는 이를 실현한 결과도 나오고 있다. 대구 서구 내당동의 주부 서모(60)씨는 "이 후보를 좋아하지는 않지만, 윤 전 대통령이 계엄을 저지른 것과 더불어 이에 대한 국민의힘의 사후처리를 보고 실망해서 이 후보를 뽑을 것"이라며 "대구도 바뀌어야 한다는 생각에 나부터 실천

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경북 안동에서 만난 30대 남성은 "안동 민심에 균열이 생기고 있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이 후보의 고향이자 유소년 시절을 보낸 안동에서 그의 존재는 일부 유권자에게 향수를 자극하며 표심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했다. 국민의힘의 '지키기', 민주당의 '약진' 대결 속에서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 지지층도 틈새에서 확장을 노리고 있다. 직장인 강모(30)씨는 "그동안 국민의힘을 지지했으나, 보수의 미래를 위해 젊고 똑 부러지는 이준석을 선택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매일신문=신동우·김영진·이영광·윤정호 기자

관내사전투표함은 이렇게 보관되고 있습니다.

(중앙선거관 제공)

- 01 사전투표 마감 후**
매일의 사전투표 마감 후 사전투표관리관은 사전투표장인 창관 하에 관내사전투표함 투입구를 봉쇄·봉인
- 02 사전투표함 이송**
사전투표장관리 및 호송 경찰공무원과 함께 사전투표함을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로 인계
- 03 사전투표함 접수**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는 정당추천위원의 참여 하에 사전투표함의 봉쇄·봉인 상태를 확인하여 보관창소에 적치
- 04 사전투표함 보관**
사전투표함 보관창소는 CCTV와 보안정보시스템을 설치하여 출입을 엄격히 통제하고 24시간 CCTV 녹화 및 모니터링
- 05 사전투표함 개표소 이송**
사전투표함은 선거일 투표마감시간 후 정당추천위원과 개표장관리인의 점검하여 개표소로 이송하여 개표

건물·주택 지붕공사, 스틸방수, 리모델링

건축시공, 설계, 견적, 리모델링, 상담문의

